

배포일시	2020. 2. 14.(금) 12:20 (총 3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담당자	과장 김용진 예보관 주형돈
		전화번호	043-272-0365

## 16~17일 "많은 눈" 이후 "강추위"

- 16일 새벽부터 날씨 빠르게 나빠져 -

- 16~17일 많은 눈, 빙판길 조심, 대설특보 곳곳 가능성
  - 16일 새벽~아침 충북 비 또는 눈, 충북북부 오전에 눈
  - 16일 밤~17일 오전, 충북 대설특보 가능성
- 기온 큰 폭으로 떨어져 바람 강해 체감온도 푹
  - 나들이, 산행 등 야외활동에 유의, 냉해피해 주의



[ 2월 16일 아침 ]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 [ 16~17일 비/눈 전망 ]

- 16일(일)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북에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어 차차 비 또는 눈으로 바뀌겠으며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 16일 아침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 유의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 16일 오후~17일(월)은 대기 하층 1.5km 부근의 영하 12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가 서해상으로 진출하면서 해기차에 의해 눈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이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북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 특히, 16일 밤~17일 오전, 충북에는 최고 20cm 내외의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6~17일은 비가 눈으로 바뀌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노면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우려되고, 기상변화로 인해 주변 환경이 매우 빠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말 야외활동(나들이, 산행 등)이나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추위 전망 ]

- 16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빠르게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충북의 16일 낮기온이 전날보다 15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겠고, 19일까지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 특히, 17일부터는 충북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이후 19일까지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부근까지 낮아지는 등,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한랭질환, 수도관 동파 등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 이번 주(10~14일) 동안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 분포를 보인 상태에서 16일 오후~19일 오전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하는 추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한편, 20일부터 북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회복하겠고, 주말은 낮 최고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 [ 강풍 전망 ]

- 16~18일에 충북에는 시속 30~45km(초속 8~12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